

6강 점프 양보 못해!

프로농구 4라운드 진입 3강·4중·3약 구도

중위권 KCC·삼성·SK 6강 살아남기 경쟁

어느덧 4라운드에 진입한 프로농구의 중위권 4개 팀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부산 KT와 인천 전자랜드, 원주 동부바 3강 체제를 꾸리며 그들만의 독주에 전념하고 있을 사이 '2부 그룹' 4개 팀은 6위 안에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각각 4연승과 4연패를 기록 중인 전주 KCC와 서울 SK는 중위권 판도 변화의 핵으로 거듭났다.

그야말로 KCC의 상승세는 거침이 없다. 지난주 3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가며 16승 13패가 된 KCC는 순위는 그대로 5위에 머물렀지만 단숨에 4위 서울 삼성(17승12패)과 격차를 1경기 차로 줄이는 고공비행을 했다.

이번주 SK, 서울 삼성, 창원 LG와 치르는 원정 3연전에서도 내리 승리를 따낸다면 선두권 진입마저 가능하다. 반면 그간 불리코

스타식 5할 승부를 펼치던 서울 SK(13승16패)는 3연패로 휘청하며 창원 LG와 공동 6위로 처져 몰상이다.

방성윤과 김민수가 극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팀플레이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테렌스 레더의 해결사 분능은 매번 크게 뒤진 점수 차 때문에 발동조차 걸기 어렵다.

SK로선 11일 KCC와 홈 경기에서 연패 사슬을 끊고 싶었지만 불운은 KCC의 무릎을 꿇게 하거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츰 나아지고 있는 방성윤의 득점력이 그나마 기쁜 언덕이다.

LG는 크리스 알렉산더가 평균 10득점에 못 미치는 부진에 빠졌다. 9일 안양 인삼공사에 3점차 석패를 당한 LG는 좀처럼 5위권 안으로 쉽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태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 옵션 마련이 급선무다.

하위권에선 울산 모비스의 고춧가루 역할

프로농구 중간 순위

순위	팀명	승	패	승차
1	부산 KT 소닉 블	21	8	0
2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20	8	0.5
3	원주 동부 프로미	20	9	1
4	서울 삼성 썬더스	17	12	4
5	전주 KCC 이지스	16	13	5
6	서울 SK 나이츠	13	16	8
6	창원 LG 세이커스	13	16	8
8	안양 한국인삼공사	9	21	12.5
9	대구 오리온스	8	21	13
9	울산 모비스 피버스	8	21	13

이 주목된다. 최근 전자랜드와 삼성을 잇따라 제압한 모비스는 새로 영입한 외국인선수 캔트렐 그랜스벨라가 '유재학표 수비농구'에 손조롭게 적응을 마쳤고, 양동근이 어시스트 못지않은 득점포를 가동해 경기력이 한층 나아지고 있다.

모비스는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타이틀과 어울리지 않게 골짜에 머물고 있지만 남은 올 시즌 '복병' 노릇을 톡톡히 해내며 프로농구의 감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은 비록 지난주에 모비스에 일격을 당하기는 했지만, 승수를 많이 쌓아놓은 데다 안정된 전력을 보이고 있어 상승세를 탄 KCC와 4-5위를 나눠 가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4라운드 초입에 들어선 각 팀의 중위권 살아남기 경쟁은 이번 주부터 본색을 드러내 프로농구를 더욱 흥미롭게 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日 우승 후보라더니...

요르단과 극적 무승부

시리아는 사우디 꺾어

아시아컵 역대 최대 우승(4회)에 도전하는 일본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4위인 중동의 복병 요르단과 한 골씩 주고받는 혈투 끝에 힘겹게 무승부를 거뒀다.

역시 지금까지 아시아컵에서 세 차례 정상에 올랐던 같은 조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에 1-2로 패하는 등 B조 1차전은 모두 예상 밖 결과로 끝났다.

FIFA 랭킹 29위 일본은 9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카타르 스포츠 클럽에서 치러진 요르단과 2011 아시아컵 B조 조별리그 1차

전에서 전반 45분 하산 압델 파타흐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인저리 타임에 요시다 마야의 극적인 헤딩 동점골이 터지며 1-1로 비겼다. 2004년 중국 대회 8강에서 요르단을 만나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로 승리를 맛봤던 일본은 7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재회해 또 한 번 무승부를 거뒀다.

일본은 정예멤버를 모두 투입해 일방적 공세를 펼쳤지만 요르단의 수비벽을 뚫지 못한 채 90분 내내 고질적인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다 힘겹게 패배의 수렁에서 벗어났다.

알라얀 스타디움에서 열린 같은 조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의 경기에서는 시리아가 2-1로 이겼다. FIFA 랭킹 107위 시리아는 전반 38분과 후반 18분 혼자 두 골을 터뜨린 알말라자크 알 후사인을 앞세워 후반 15분 타이시르 알 자심이 한 골을 만회한 사우디아라비아(81위)를 꺾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상대 전적에서 1승8무14패로 절대 열세를 면하지 못하던 시리아는 이날 승리로 B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하인스 워드, 美 프로풋볼 PO 출격

16일 볼티모어 상대

한국계 하인스 워드(35)가 뛰는 미국프로풋볼(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첫 플레이오프 상대가 볼티모어 레이븐스로 결정됐다.

피츠버그는 10일(이하 한국시간) 치러진 와일드카드 플레이오프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30-7로 물리친 볼티모어와

16일 홈 구장에서 NFL 아메리칸콘퍼런스(AFC) 디비전날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피츠버그는 정규시즌에서 12승4패로 AFC 북부지구 우승을 차지하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인 디비전 플레이오프에 직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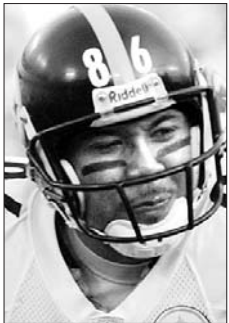
이번 시즌 피츠버그에 이어 AFC 북부지구 2위에 올랐던 볼티모어는 1라운드

와일드카드 플

레이오프에서 난적 캔자스시티를 23점차로 제압해 '디비전 라이벌' 피츠버그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피츠버그와 볼티모어는 이번 시즌 두 번 맞붙어 1승1패를 기록하며 호각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박태환, 세계선수권 200·400m 주력

선택과 집중 필요 1500m 출전 않을 듯

박태환(22·단국대)이 오는 7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하는 2011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1500m에는 출전하지 않고 200m와 400m에 주력할 전망이다.

박태환의 후원사인 SK텔레콤스포츠담당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박태환이 이번 상하이 세계선수권대회 때 자유형 1500m에는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형 200m와 400m에 집중하고 대신 자유형 800m를 뛰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11일 태릉선수촌에 모여 국가대표팀과 새해 첫 훈련에 들어갈 박태환은 10일 오전 따로 선수촌을 찾아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며 세계선수권대회 준비를 시작했다.

박태환은 다음 달 초 시작할 호주 전지훈련 기간 전담 지도자인 마이클 불(호주) 코치와 상의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종목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불 코치와 박태환은 자유형 1500m에 참가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태환이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1500m에 참가하지 않으면 내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자유형 200m와 400m만 뛰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남자 자유형 800m는 올림픽 종목이 아니다.

박태환은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단거리인 자유형 200m부터 중거리 400m와 최장거리인 1500m 등 세 종목을 모두 뛰어왔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선 자유형 200m, 400m와는 달리 1500m에서는 아시아 기록과도 거리가 멀어 종목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광주FC 명예 기자단 모집

프로축구 광주 FC가 선수단의 생생한 소식을 전할 '2011' 광주FC명예 기자단'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의 취재, 사진, 영상으로 내달 6일까지 구단홈페이지(http://www.gwangju-fc.com)에서 참가 신청을 하거나 구단 팩스(062-371-7734)를 통해 자기소개서를 접수하면 된다. 1차 선발자는 2월10일 발표된다. 명예 기자단에게는 홈경기 출입 ID카드가 주어지며, 우수 활동 기자에게는 제주원정경기 취재 및 국내외 전지훈련 동행 취재 기회가 제공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업은행 여자축구 WK-리그 후원

IBK 기업은행이 앞으로 2년간 한국 여자프로축구 WK-리그 타이틀 스폰서가 된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10일 오전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관 대회의실에서 IBK 기업은행과 후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IBK 기업은행은 여자축구연맹에 연간 5억 원씩 2년간 후원하면서 WK-리그와 연계한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전국선수권대회 등 3개 대회에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 /연합뉴스

GG경매컨설팅(주)

대표이사 노찬구 ☎222-1907
공인중개사 010-9311-1907

▶근린시설/근린상가/주유소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안구	월곡동	1120/3954	2799원	159억2천원	4층건물
	월곡동	115평	594원	294천	22리사(무)·2층
	월곡동	365/1238	1292원	81억2천원	유형·층건물
	상당동	512/651	993원	69억2천원	유형·층건물
	상당동	3070/498	2693원	1894억2천원	주유소
	상당동	148/45	294원	787천	드림리조트(무)
북구	신원동	2311/712	2097원	169억5천	주유소
	신원동	337/1305	897원	69억1천원	5층건물
	중흥동	737/722	1195원	897천	3층건물
	신원동	330/108	695원	497억2천원	5층건물
남구	주월동	715/3505	3695원	259억2천원	7층건물
동구	지산동	1060/36	4998원	394억7천	단층
서구	서해동	651/165	294원	194천	단층
	서해동	1730/456	1293원	894억7천	주유소
장성군	장성동	438/617	695원	294억1천	식당·당구장
담양군	금성동	691/220	194원	895천	단층상당

▶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남구	월곡동	206/196	194원	297천
북구	무암동	181/320	294원	194천
광안구	북곡동	196/220	194원	294천
서구	백전동	426/184	294원	194천
	영선동	185/219	194원	294천
북구	왕산동	316/140	194원	294천
	왕산동	338/120	194원	294천

▶숙박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북구	운암동	375/815	695원	394억2천
광안구	쌍암동	992/1357	1794원	997억2천

▶공장/창고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광안구	바리동	875/1195	894원	594억2천
	장대동	1711/1082	794원	594억2천
	안평동	2975/950	794원	594억2천
장성군	황룡동	10547/3870	2994원	1994억
담양군	대평동	1268/494	394원	294억2천

【공인중개사 : 강영희 ☎(062)364-8700 H.P 010-4608-3700】

▶아파트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면적(㎡/평)	감평가	최저가
광안구	신원동	신원	109/33	194원	394억2천
	신원동	신원	121/36	194원	194억2천
	월곡동	백산	145/44	194원	194억2천
남구	월곡동	무등비크	105/32	194원	894천
	월곡동	금호	195/59	294원	194억2천
	송하동	금호타운	109/33	995원	695천
	중흥동	중흥	109/33	995원	795천
동구	월곡동	리안	109/33	194원	194천
	신원동	대주	142/43	194원	194천
북구	월곡동	우성	142/43	194원	894천
	월곡동	배림원	105/32	995원	695천
	월곡동	삼익	105/32	995원	695천
	안평동	대주비크	112/34	194원	194천
	오차동	금호	109/33	995원	695천
	월곡동	쌍용에기	178/54	394원	294억2천
	월곡동	꿈에그린	146/44	294원	194억2천
	월곡동	삼익	158/48	194원	995천

▶토지(전,답,임야,대지)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평)	감평가	최저가
국악동	석곡동	임야	138246/42122	695원	295천
북구	지하동	대지	542/164	194원	695천
남구	화정동	목장지	2261/683	695원	495천
서구	매곡동	전	1399/423	394원	294천
	우성동	답	462/139	194원	795천
광안구	신원동	답	496/150	194원	294천
내주시	이평동	대지	300/90	594원	395천
장성군	장성동	임야	310839/94028	497원	397억2천
	남면	답	2163/854	495원	495천
	상서동	대지	4485/1356	695원	695천
회성군	도곡동	대지	509/154	194원	595천
함양군	함양동	임야	23008/6959	294원	195천
함양군	대평동	임야	62777/18990	595원	395천

북구 신원동 주유소

대지(699평) 연건평(215평)(2층건물)1용무조교사숙인구
2006년건축 1.2층전용면적 각74평,1층카를리니의사실22만
감평가20억7천원 최저가14억4천원

▶상가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평가	최저가	비고
광안구	수원동	662/301	394원	294천	수업건
	월곡동	206/153	294원	194천	단층건물
	월곡동	230/393	294원	194천	3층건물
북구	월곡동	347/273	394원	194천	단층건물
	주월동	185/395	294원	194천	3층건물
	신원동	211/291	394원	194천	3층건물
	중흥동	199/585	394원	294천	4층건물
	오차동	200/379	294원	194천	3층건물
	무암동	257/621	494원	394천	3층건물
	월곡동	125/127	194원	194천	3층건물
서구	월곡동	225/567	494원	394천	3층건물
	영선동	205/325	394원	194천	3층건물
담양군	청평동	11068/3348	794원	595천	창고건물

▶원룸/빌라/다세대/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평)	감평가	최저가
광안구	월곡동	원룸	257/438	294원	294천
	송하동	원룸	423/578	594원	394천
	송하동	원룸	493/811	894원	394천
	오차동	원룸	304/516	494원	294천
	신원동	원룸	367/556	894원	494천
	무암동	원룸	337/450	394원	294천
	노원동	원룸	271/596	594원	394천
서구	지하동	골동(2인실)	16평	595원	395천
	금호동	원룸	333/223	394원	294천
	지하동	원룸(2인실)	16평	595원	395천

추천물건

광안구 쌍암동 숙박시설

대지300평 연건평410평 광주우편집중공구처
2000년건축 객실 30개 지하1층 지상5층
감평가 17억4천4백원 최저가19억7천5백원

광안구 쌍암동 근린시설

대지155평 연건평197평 롯데마트서측인근
2008년건축 1층대형식당 2층 유휴
감평가19억3천6백원 최저가16억5천5백원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구함.
용량 100 - 1,000KW.

차고지 임대구함

면적 2,000㎡(600평)정도. 상업. 주거3중.
주주거. 자연녹지.

쌍촌동 내대지.㎡

서구 쌍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광사 2,992㎡.
(905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진입로. 매매가
상당함의. 도시형생활주택. 종교시설. 요양원적
지.일부 분할가능.

신막동 과수원 (전원주택 용지)

면적 3,423㎡(1,035평).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감평가 18억 최저가 10억
감나무 과수원. 남향. 황룡강변. 관리사 및 창고
하기특함 전원생활 적합. 매매가 3.3㎡당 15만원.

첨단 보훈병원와 자연녹지

광안구 신원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
㎡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건물매매(용종지구)